

碩士學位論文

인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 형태적 특성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 연구

2004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蘇 景 美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東 烈

인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 형태적 특징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 연구

2004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蘇 景 美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黃 東 烈

인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 형태적 특징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 연구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蘇 景 美

蘇景美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 年 6 月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국 문 초 록

메이크업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메이크업의 의미는 단순히 그러한 욕구 충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개인적인 기술의 단계를 넘어 타인과의 의사 전달, 예의 표현,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의미 또한 부여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6~7초라는 짧은 시간에 의해 얼굴의 생김새, 행동, 성격 등 약 80%의 첫 인상이 결정지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그들의 얼굴 특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의 신체 여러 특징 중에서 얼굴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각이 되어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다 나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얼굴형에 알맞은 메이크업 기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이상적인 얼굴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 외 서적 및 기타 정 간 물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보고, 더불어 10~2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얼굴형과 각 얼굴형별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얼굴형은 7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계란형의 얼굴을 가장 “여성스러운” 인상과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보았고, 역삼각형의 얼굴은 “날카로운”인상을, 마름모형의 얼굴은 “개성 있는”, 사각형은 “남성스러운”, 긴 얼굴형은 “지적인”, 삼각형은 “늙은”의 이미지로 보았는데, 이를 통해 얼굴형이 인상 형성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형을 보완하여 이미지 구축과 연관지어 나가는데 메이크업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인상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메이크업의 정의	4
1. 메이크업의 개념	4
2. 메이크업의 기능	5
3. 메이크업의 기원	7
III. 관상학의 일반론	13
1. 관상의 개념	13
2. 관상의 기원과 유래	17
3. 관상학과 인상학의 차이	18
IV. 얼굴의 골학과 근학	20
1. 얼굴의 골상학적 특징	20
2. 안면 근육	21
V. 관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의 형태적 특징	23
1. 이상적인 얼굴형	24
2. 얼굴형 분류	27
1) 달걀형	32
2) 둥근형	34
3) 역삼각형	36

4) 사각형의 얼굴	38
5) 긴 얼굴형	41
6) 마름모형의 얼굴	44
 VI. 얼굴형과 인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46
1. 연구 방법	47
2. 분석 결과	48
3. 결 론	48
 VII. 결 론	49
 참 고 문 헌	52
 Abstract	55

그림 목차

<그림 1> 얼굴의 문신	8
<그림 2> 클레오파트라의 눈화장	8
<그림 3> 족장의 몸치장	10
<그림 4> 몸전체에 장식을 한 여인들	11
<그림 5>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여인	11
<그림 6> 12궁	16
<그림 7> 안면 두개골	21
<그림 8> 안면 근육	22
<그림 9> 시대별 선호하는 얼굴들 - 이효리의 얼굴 분석	26
<그림 10> 이효리 사진	31
<그림 11> 송혜교 사진	31
<그림 12> 전지현 사진	32
<그림 13> 박주미 사진	32
<그림 14> 달걀형 - 하지원 사진	33
<그림 15> 둥근형 - 조정린 사진	35
<그림 16> 둥근형 - 윤곽 수정	35
<그림 17> 둥근형의 윤곽수정, 본 연구자 작품	36
<그림 18> 역삼각형 - 도지원 사진	37
<그림 19> 역삼각형 윤곽수정	37
<그림 20> 역삼각형의 윤곽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38
<그림 21> 사격형 - 박경림 사진	40
<그림 22> 사각형 얼굴의 윤곽수정	40
<그림 23> 긴 얼굴형의 윤곽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43
<그림 24> 긴 얼굴형 - 이태란 사진	43
<그림 25> 긴 얼굴형 윤곽수정	43
<그림 26> 마름모형의 윤곽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45

표목차

<표 1> 각 문헌에 따른 얼굴 유형별 명칭과 분류 수	29
<표 2> 얼굴 각 부분별 이상적인 연예인	30
<표 3> 얼굴형별 이미지 특성 설문조사	4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과 같이 대중 매체가 폭넓게 발달되고 있는 때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메이크업은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메이크업(Make-up)이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메이크업이 가지는 의미가 욕구 충족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모를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개인적인 기술의 단계를 넘어 타인과의 의사 전달, 예의 표현,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¹⁾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의미 또한 부여되었다. 즉, 개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이미지 창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난다. 무수한 만남 속에서도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도 그 인상이 오래도록 우리의 뇌리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이렇듯 그 사람의 이미지(인상)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입견이라는 아웃라인(Outline)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오늘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 외모는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인상이 좋고, 나쁘다는 그런 느낌의 대부분은 얼굴의 모습을 보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메이크업을 통해 수정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1) 박선희, “현대 여성의 화장 행위와 성격 유형과의 관계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p.2

본 논문에서는 얼굴의 형태적 특징을 인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상을 통하여 그에 맞는 메이크업 테크닉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좋지 않은 부분도 메이크업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타고난 인상도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인상의 얼굴로 바꿀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현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말한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이미지 비전이 높은 사람이고 이미지 비전을 높이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사회에서 도태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좋은 이미지란 타고나는 것보다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고 높여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외적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얼굴 표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상에도 관여한다.²⁾

관상에 대해서 연구하려 한다면 심지어는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 걸음걸이,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숨 쉬는 모양과 상태, 웃는 모양, 우는 모양, 얼굴색 등 그 사람의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을 연구해야 한다.³⁾ 그러나 본 연구는 얼굴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메이크업 기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상학을 협의적인 면에서만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로 메이크업의 개념 및 기능과 유래를 기존 문헌을 통해 이론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메이크업의 기능이 인상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제 3장에서는 관상학의 기본으로 관상학의 개념 및 유래와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관상학과 인상학의 미세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비교 하였고 이러한 관상법이 좋은 관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 강은주, “눈썹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2003, p.1

3) 김성형,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p.37

제 4장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골상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안면 근육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5장에서는 이상적인 얼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내 서적 및 학위 논문과 기타 정 간물, 인터넷 사이트, 의학 서적을 통해 분석하였고, 얼굴형을 7가지로 분류하여 관상학적 이미지를 서술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얼굴형별 메이크업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실제로 모델에게 시술하여 화장전과 화장후의 사진을 비교하였다. 제6장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얼굴이란 무엇이며, 얼굴형과 인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얼굴 형태적 특징별 이미지 조사를 하였다.

Ⅱ. 메이크업의 정의

1.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이란, 자기 얼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그에 맞는 적합한 색과 명암을 매치시켜 장점은 한층 돋보이게 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개성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의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이란 말은 화장품과 동의어로 그리스어 코스메틱 코스(COSMETICOS)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코스메틱 코스는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 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 또 “화장이란 여러 가지 화장품을 기교적, 예술적으로 사용하여 피부를 미화시키고 용모를 다듬어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미용술”이라고 했다.⁵⁾

현재 우리가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16C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부터 인데, 이는 당시의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C의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6~17C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Paint)”라고 불렀고 그 후에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Painting)”이라 하였다. 17C에는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랏슈(Ricard Crasho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 주는 의미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말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미국 헐리우드 전성시대 때 대중화되었다.⁶⁾

4) 강영, “Make-up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2000, p.4.

5) 김봉인, “화장 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p.19.

메이크업은 자신을 표현하는 거울이다. 외형적인 미적 효과인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타인과의 의사전달(인상), 예의 표현, 관습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측면과 인물의 성격, 사고 방식, 가치 추구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심리적인 면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메이크업은 인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한 사회적인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고 자연적인 고유미와 개성미를 창출 하는 것⁶⁾, 그리고 얼굴의 상처나 흉터와 기타 각 얼굴 부위의 형태적 결점을 커버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신적 건강함을 주고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2. 메이크업의 기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메이크업은 단순히 인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적 기능 이외에도 사회적, 심리적인 기능들을 수반한다.

1) 미적 기능

이는 메이크업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몸에 대한 치장을 인간의 욕구들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물론 고대로부터 본능적인 이유에서 몸을 장식하는 행위가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나 현대에 와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6) 한명숙, 『마귀아쥬 예술』, 청구 문화사, 1999, p.11.

[www.http://my.netian.com](http://my.netian.com)

7)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7, p.21.

이러한 미적 기능은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즉 화장행위란 하나의 예의이고 대인관계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을 향상시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은 화장행위를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지나친 인공미를 표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수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중요성을 부여한다.

2) 보호 기능

이것은 메이크업의 보호설에 기인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외부 자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장의 개념이었다면 현대에는 공해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화장 행위의 예방 의학적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또 하나의 심리적인 보호 기능은 고대의 보호 개념이 정령이나 잡귀로부터의 주술적인 보호였다면 현대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로부터의 보호라 할 수 있다.

3) 심리적 기능

이것은 메이크업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표출하는 기능을 의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매력을 발휘하여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갖게 될 때 보는 이로 하여금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될 때 삶에 활력과 자신이 생기게 된다.⁸⁾

이러한 메이크업의 기능들이 수행되어 질 때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표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미의식 속에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여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8) 김화심,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p.10~11.

3. 메이크업의 기원

인간은 왜 메이크업을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오랜 세월동안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인간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원시시대부터 인간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본능적인 동기⁹⁾와 장식 외적 수단인 신체 보호 및 보온을 목적으로 신체에 짐승의 기름을 두껍게 바르거나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눈 화장과 같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1) 미화(美化)설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망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는 인간의 생태적 본능 중의 하나로 이를 표현하고자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태고적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은 돋보이도록 하고 일부의 약점이나 추한 부분은 수정 혹은 위장하여 타인에게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들로 하여금 미(美)의 위엄 앞에 굴복하기를 희망했다.¹⁰⁾

2) 보호설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몸에 상흔(scarring)과 문신(tattooing)을 행하여 왔는데 기원전 2000년경 만들어진 이집트의 미라에도 문신이 남아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기원전 500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점토 인형이 발굴된 바 있다.

9) 이은임, “화장 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2000,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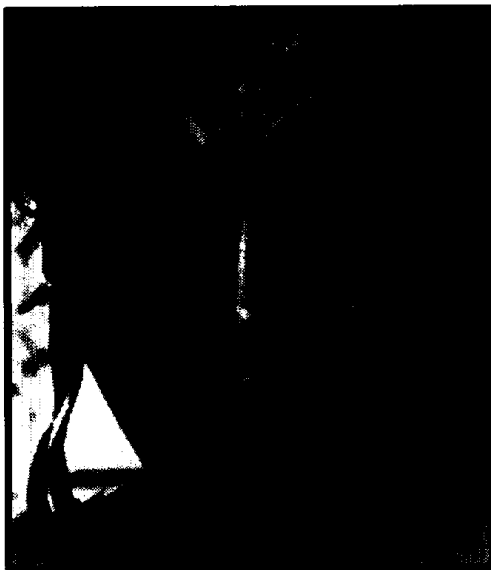
10) 한명숙, 앞의책, p.12

초기의 문신은 주술적, 종교적 의미가 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삼한 시대부터 문신이 사용되어 왔다. 비슷한 사례로, 남태평양 부근의 섬 주민들은 허벅지 등에 상어 문신을 새김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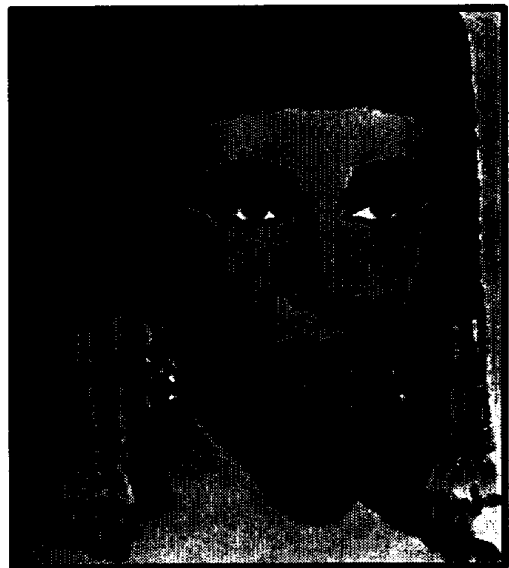
이렇듯 인간이 문신을 한 것은 적을 공포감에 몰아넣기 위해, 또는 악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이크업을 하였다는 견해에서 나온 설이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자면 이집트의 여인이 눈을 코올(Kohl)로 짙게 화장¹²⁾한 것은 바람이나 모래, 곤충,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800년대의 여인이 백납분을 사용한 이유가 가스등이나 촛불의 그을음으로부터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한낮의 태양으로부터 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1> 얼굴의 문신



<그림 2> 클레오파트라의 눈화장

11) 네이버 지식검색, 문신의 유래

12) 김남희, 『Base Make up』, 도서출판 예림, 2003, p.16

3) 위장설

고대인들은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또는 식물성 색소 등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위장함으로써 전쟁 또는 사냥에서 승리로 이끌고자 메이크업을 행하였다고 보는 견해에서 비롯된 학설이다.

현대에도 전쟁 또는 작전 중 주위 환경을 고려한 군복의 문양과 색상을 이용하거나 얼굴을 눈에 띄지 않도록 분장함으로써 신체를 위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4) 신분 표시설

아프리카 민족 간에 행하여지는 특이한 헤어스타일, 귀걸이, 코걸이, 팔찌 등은 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계급이나 신분, 부족을 나타내기 위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문신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마셜 제도에서는 턱과 얼굴을 장식하는 것은 추장만의 특권이며, 왕족은 팔에, 일반인들은 등과 가슴에만 문신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한다.¹³⁾

이러한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절대자는 자신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를 붉은 색이나, 백납, 식물성 색소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색채로 채색하여 민중 위에 군림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13) 네이버 지식검색, 『문신의 유래』



<그림 3> 족장의 몸치장

5) 장식설

옷을 입기 시작하기 이전의 원시 시대에는 나체 상태에서 피부에 직접 회화, 조각, 문신을 새겨 자신의 우월성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형태가 오늘날의 메이크업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즉 생존 경쟁으로부터 승리한 원시의 투사가 그의 부족에게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신체에 남아 있는 승리의 상처와 얼룩진 피가 감탄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용맹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표식이나 장식을 하려는 욕망이 원시의 지배자들로부터 욕망이 원시의 지배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채로운 색채의 진흙을 사용하여 얼굴, 머리등 전신에 바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시적 방법의 장식은 원시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해서 예속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으로 지금도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콩고의 마요고족들 사회에서는 성행하고 있다.¹⁴⁾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나’라는 식물의 잎에서 물감을 추출하여 머리와 수염을 물들이고 여성들은 이것으로 얼굴과 손등 또는 발등에 문양을 그려 넣어 장식했다.

¹⁴⁾ <http://www.world-tattoo.com>



<그림4> 몸전체에 장식을 한 여인들



<그림5>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여인

6) 제의설

주술적,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전승을 기원하기 위해서 얼굴에 색칠을 하는 관습은 지금도 원시 민족 간에 남아 있고, 질병이나 신, 그리고 악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쫓기 위해서 얼굴이나 몸에 색칠을 하는 관습도 계속 남아 있다. 인간이란 불안에 고민하는 극히 약한 존재라는 점, 또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 장식, 문신, 상흔, 동물의 분장 등을 필요로 했는데 재화(災禍)가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하고 신이나 정령을 부르고, 할 수 있는 한 대접을 하고, 그 가치로 초 자연력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주술적인 이유에서이다. 사람들은 신이나 정령과 교류하여 그 가치를 기원하기 위해 일상과는 다른 몸매 가꾸기를 했다. 또한 신이나 정령을 향한 제단을 장식했다. 따라서 몸매 가꾸기를 권력이나 지위와 부의 표준, 심벌 또는 의례적 표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거듭 촉구되어 정교하게 그리고 고도로 발달하게 됐다. 그러나 그 근원은 인류가

가진 존재의 원초적인 불안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식하는 것으로 불안하지 않은 자기를 외관으로 가꾸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

15) 한명숙, 앞의책 p.13

Ⅲ. 관상학의 일반론

1. 관상의 개념

우리는 흔히 관상학을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관상학은 오랜 세월을 거쳐 엄연한 학문으로서 연구되어 왔고 현재에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상학의 개념은 동, 서양이 서로 다르지만 오늘날의 관상학은 동양의 것을 토대로 하고 서양의 골상학을 가미해서 고도로 발전해 왔다.¹⁶⁾

관상은 얼굴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부위를 제외하고도 사람의 점, 머리카락, 혹, 사마귀, 신체적인 특징, 걸음걸이,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숨 쉬는 모양과 상태, 웃는 모양, 우는 모양, 얼굴색¹⁷⁾ 등과 같은 총체적인 면을 통해 비로소 판단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상학(觀相學)이란 인체의 부분적 특성이나 형상을 통해 성격과 운명을 판단하는 이론 및 행위를 말한다. 영한사전을 살펴보면 Physiognomy로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는데 특히 얼굴, 생김새, 면상(面相), 인상을 이야기하며 관상술(觀相術)이라고 정의한다.¹⁸⁾

본 논문에서 말하는 관상학은 얼굴의 각 부분적 특징과 그로 인해 관찰되어지는 성격과 운명을 판단하는 이론 및 행위에 국한한다.

관상이란 글자 그대로 “보고 또 본다”는 뜻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관(觀)은 “보다”는 뜻이고 상(相)또한 “보다, 자세히 살피다, 서로

16) 송은화, “동양관상학을 적용한 20대 한국 여성 캐릭터의 성격별 얼굴 형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2003, p.26

17) <http://sed.co.kr>

18) 시사영어대사전, 시사영어사, p.1730

안혜정, “만화영화에 있어 캐릭터의 얼굴 유형에 대한 관상학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1999, p.3

보다”라는 뜻이다. 관상에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상(像)이나 형(形)자를 쓰지 않고 “보다”, “서로”, “자세히”를 의미하는 상(相)을 중복하여 쓰게 된다.

상(相)을 보는 법은 여러 방식이 있으나 사람은 대자연의 영기(靈氣)를 받고 태어났으므로 모든 것을 자연과 비교하여 생각하면 가장 쉽게 풀린다.

상의 모든 조건이 자연의 원리에 부합되면 선상(善相)이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상(惡相)이라 한다. 사람의 모습이 대자연의 모습과 이치에 너무 나도 일치하므로 사람을 소우주라 한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못별이 있으며 땅에는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오직 귀하니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그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우주 만상의 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관상법은 바로 이 만상의 이치를 상에 부합시켜 가며 가려 보는 학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얼굴을 보는 법이 바로 관상이다. 얼굴의 요소요소를 주목하여 보게 되면 마음의 흐름, 운명의 흐름이 모두 보이게 되니 그 요소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12개의 위치가 있다고 한다.

명궁의 위치는 두 눈썹과 눈썹의 사이, 즉 양미간으로 콧등을 타고 올라가 눈썹 사이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

명궁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로 재백궁이 있는데 코의 위치로 가늠하게 되며 모양과 빛깔도 함께 가늠한다. 너무 큰 코도 좋지 않으며 매끄러운 코를 좋은 재백궁으로 친다.

형제궁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형제나 자매들과의 관계이다. 평생을 살면서 피를 나눈 형제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눈썹을 중심으로 예측하게 되며 그 주변의 피부까지도 살펴보게 된다. 옛 어른들의 그림에 나타나듯 초승달 모양의 눈썹을 가장 으뜸으로 쳐주게 되며 털이 부드러워야 한다. 털이 거친 것은 좋지 않다고 보며 초승달에 부드럽게 고른 결을 가진 눈썹을 가장 좋다고 한다.

전택궁은 평생의 주거운을 볼 수 있는 위치이다. 눈과 눈썹의 사이 눈꺼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으로 평생의 집에 대한 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남녀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남녀관계에 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위치이다. 특히 색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양쪽 눈의 바로 아랫 부분, 즉 광대뼈와 눈의 사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이곳의 색깔에 따라 많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푸른색 계열의 빛을 띠는 경우 이성애에 관하여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붉은 혈색을 띠게 될 경우 좋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혼사에 있어서도 이곳의 기운을 살펴 그 혼사의 성사 여부와 길흉 여부를 예측 할 수 있다.

노복궁은 광대뼈와 턱 사이 볼 부분을 일컬어 말한다. 흔히 볼때기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면 이 부분의 생김으로 가늠하게 된다. 적당히 도톰하고 발그스레한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처첩궁이 나타내는 것은 위치나 생김에 따라 이성운이 결정지어지게 된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성의 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평생의 운을 이곳에서 살피게 되는 것이다.

질액궁이 나타내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재난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궁의 위치는 콧잔등의 제일 가운데 부분을 보는 것으로 다른 자리와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거나 빛깔이 어두운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천이궁은 그 삶의 이동수에 관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움직이는 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천이궁의 색이 변화하여 알 수 있게 되며 색이 변하게 된다 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관록궁은 이마 전체를 보는 것이 정석이다. 이마 전체에 걸쳐서 운이 나타나게 되며 그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곳은 입신 양명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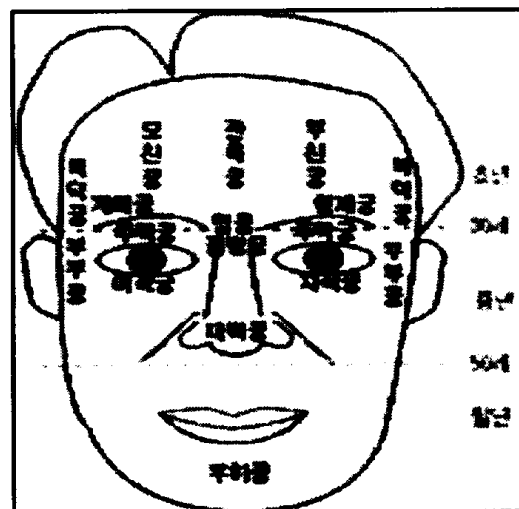
복덕궁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받는 복이나 덕이 나타나게 된

다. 눈썹 윗부분의 양쪽을 보게 되며 이곳에 상처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는 자신의 복이 달아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12궁의 마지막으로 상모궁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온 궁들과는 달리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¹⁹⁾

이와 같이 관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²⁰⁾ 이것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지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관상학적으로 나쁜 상의 얼굴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생각 등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면 신기하게도 좋은 관상의 얼굴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현재 나의 얼굴 인상을 좋은 관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싶다면 마음의 Control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관상학을 접목 시켜 좋은 관상은 어떤 얼굴인지 바로 알고 이를 메이크업 테크닉에 활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그림 6> 12궁 부위

19) <http://sed.co.kr>

20)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인과, 2003, p.28

2. 관상의 기원과 유래

관상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고대의 변혁 시대인 춘추 시대에 고평자경(姑佈子卿)이란 사람이 공자(孔子)의 상을 보고 장차 성인(聖人)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는 유래가 있다.

문헌상으로도 처음 관상학의 기원은 중국의 주나라의 숙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 여러 다른 나라 왕들의 길흉화복을 적중시켰다는 기록에 의해 이것이 기원으로 일컬어진다. 후에 남북조 시대에는 달마상법이라는 것이 불교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당나라 때에는 상법이 유명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관상은 현실에 근거를 두어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부터 내려오는 점술과는 근본적으로 유래를 달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도 신라시대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여 들어오게 되었으며 가장 활발하게 유행하였던 시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이 시기에 관상학이 가장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관상학이 아닌 상술(相術)과 상법(相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관상가로 도선 국사와 혜징, 무학대사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승려들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서경덕과 이율곡 같은 학자들도 관상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특히 허준이 쓴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 서적에도 관상학적인 요소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을 정도이고 조선시대부터 끊임없이 유행하여 오늘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관상학으로 유명했던 사람으로는 백운학 선생이 계시며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므로 고승들이 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다.²¹⁾

서양 관상학은 로마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나 서양에서는 관상학보다는 점성술이 많이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

21) <http://cambridge.co.kr>

는 타로카드 등도 예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사람은 생김을 보고 행동을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흔히 관상학을 창시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라고 전해진다. 그는 친구를 사귀거나 제자를 뽑을 때 관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관상을 보고 제자를 뽑았다고 하며 그리스의 관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상학의 책을 썼고 플라톤도 동물과 비교하여 관상학을 설명하고 있다.²²⁾

쉽게 관상을 판단하는 방법은 눈으로 보아서도 판단이 가능하다. 모양이 보기 좋지 않거나 일그러지는 등의 형태를 보이면 좋지 않다고 보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좋은 관상이라고 판단하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관상은 얼굴만 보고도 사람을 판단하는 동양의 심오한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어 복잡 미묘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관상은 보다 나은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해오던 메이크업을 각자의 얼굴 형태에 따라 좋은 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²³⁾

3. 관상학과 인상학의 차이

관상학(觀相學)과 인상학(人相學)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Physiognomy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미면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관상학에서는 ‘외형에 따라 그런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란 거의 운명적인 면으로 해석하지만 인상학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외형이 이렇게 변해가고 따라서 얼굴 또한 그렇게 변해간다’는 인간 주체적인 역량이 깔

22) <http://www.sed.co.kr>

23) 신수현, “얼굴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디자인과, 2003, p.2

려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성에 그 특징이 있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즉 내 의지에 따라 인상을 변화시키면 결과적으로 내 운의 흐름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운의 흐름과 앞으로 닥칠 일일까지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편안해 보이며 내 마음이 불편할 때에는 다른 이들의 눈에도 불안해 보인다.²⁴⁾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마음 상태가 안면 근육을 통해 표정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 인상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러한 인상이 장기간 굳어져 결과적으로 관상으로 관찰되어지는 것이다.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마음 씀씀이도 포함이 되지만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를 타인에게 심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상도 좋아지게 된다.

따라서 인상이란 타인과의 대면에서 혹은 평소 자신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²⁵⁾

본 논문에서는 여러 형태의 얼굴 특징이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골상학을 토대로 관상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4) <http://www.cambridge.co.kr>

25) 주선임, “인상학에 대한 동양 철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2, p.8

IV. 얼굴의 골학과 근학

1. 얼굴의 골상학적 특징

얼굴의 이미지는 골상에 따라 형성된다. 여기서 골상이라는 것은 골격에 따른 얼굴의 형태를 말한다.

골상학은 골격, 근육, 외모적 특성, 성격 등의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을 말하는데²⁶⁾ 골상학의 원리를 알아두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 창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²⁷⁾

얼굴은 골상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의 머리 부분과 안면골의 얼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뇌라고 부르는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를 총칭하며 인종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안면골은 소위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광대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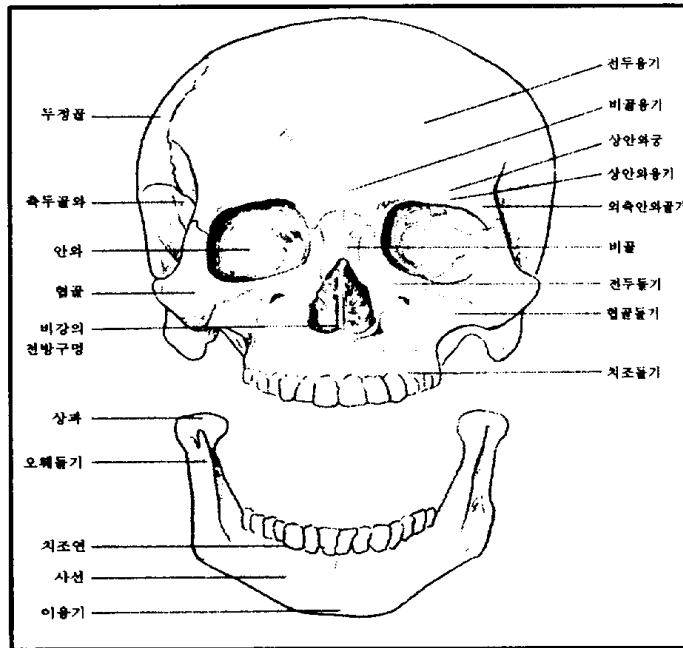
따라서 얼굴의 골격, 기본 구조와 이목구비의 배치, 그에 따른 명암 모두가 메이크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뼈의 구조, 근육, 피부 밑에 있는 연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얼굴의 형태만큼 메이크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얼굴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보다 나은 얼굴의 이미지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골상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그에 따른 골상학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6) 노효경, “얼굴이미지 구축과 색조화장의 분석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패션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5

27) 김은정, “메이크업의 선과 면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p.63



<그림 7> 골상학 - 두개골

2. 안면 근육

얼굴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어 이 근육들로 인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좌우된다. 따라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우리 얼굴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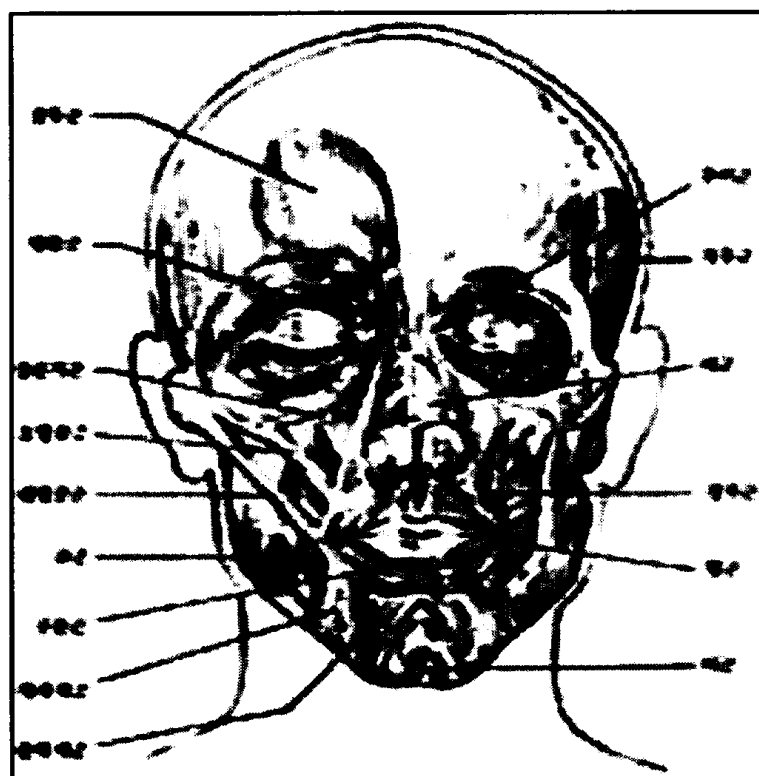
또한 우리 얼굴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눈 주위에 있는 근육(안륪근)이고, 다른 하나는 입 주위에 있는 근육(구륪근)이다. 안륪근은 눈구멍의 전면을 차지하고, 구륪근은 입술과 뺨 근처에서 시작된다.

전두근은 전두골을 싸고 있고 추미근은 눈썹 중심선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옥수수 형태의 작은 근육이다. 또한 교근은 턱의 근육을 말하며, 이 근육은 두 개의 옥수수를 붙여 놓은 모양의 근육으로서 아랫입술과 턱의 중간 아래썸에서 턱의 가운데로 나와 있다.²⁸⁾

28) 이진용,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청구문화사, 2002, p.25

얼굴을 싸고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이 근육들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표정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정들에 의해 우리의 이미지가 결정되어 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인상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러한 안면 근육들은 표정과 인상에 영향을 주며 인상은 결과적으로 관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8> 안면 근육

V. 관상학적 측면에서 본 얼굴의 형태적 특징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자주 그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에만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Lennon & Miller, 1984). 사람들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얼굴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각이 됨으로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지각자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매우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e. g., Alley, 1988; Cunningham, 1986; Secord, Duckes & Bevan, 1954), 이처럼 얼굴로부터 사람들의 특성을 읽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되고 확고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아리스토 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작품에는 강인함과 연약함, 현명함과 바보스러움, 대담함과 소심함 등과 같은 특징이 얼굴에 나타나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Berry & Mcarthur, 1986). 비록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믿음에 회의적이긴 하나, 최근에도 이러한 믿음을 지지하고 또한 이것을 뒷받침 할 만한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Berry와 Wero(1991)는 외모에 근거한 인상은 부분적으로는 정확함으로 외모에 근거한 성격 판단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또한 Berry(1990)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 얼굴과는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상과 외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인 지각에서의 얼굴 외모에 대한 영향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Berry & Mcarthur, 1986).

사람들의 얼굴의 외모를 근거로 모르는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확실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 (Berry & Wero, 1993). 얼굴의 여러 양상들 중에서 얼굴의 구조가 대인 지각에 강하면서도 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McARTHUR, 1982). 예를 들어 Secord(1958)은 유사한 얼굴 윤곽을 지닌 사람들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다른 특성을 지닌 얼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였다. 더욱이 Alley(1988)의 연구에서 판단자들은 얼굴에 대한 특정한 인

상을 형성하는 것에 높은 동의를 보여 주었다 (Berry, 1991).

1. 이상적인 얼굴형

예쁜 얼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즐겁고 유쾌하다.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보면 같은 여자끼리라도 즐겁고 기분이 좋는데 남자들은 오죽 하겠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움을 가꾼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그만의 능력이라고 인정하기도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갖는 힘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입증됐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크게 달라졌으리라'는 가정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다. 오늘날 성형술과 화장술의 발달도 이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며 여성에 있어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하나하나의 이목구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조화된 얼굴이다. 눈, 코, 입을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상당히 예쁜데도 어딘지 모르게 아름답거나 이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목구비 자체는 별로인데도 아름답고 멋지다는 느낌을 주는 여성이 있는데 이는 바로 균형이 잘 잡혀 얼굴 전체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경우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호감이 가는 좋은 인상의 얼굴이란 균형이 잘 잡혀 안정감이 있는 얼굴이며 이것이 바로 좋은 관상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화된 얼굴의 첫째 조건이 바로 얼굴형이다. 이상적인 얼굴형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1890년대에는 둥근 얼굴과 경사진 어깨가 미의 기준이었고 20세기 초에는 좁은 어깨와 뾰족한 얼굴이 선호되었다. 그후 1950년대에는 작고 단정한 어깨와 계란형의 얼굴이 패션모델이 지녀야 하는 신체 조건이었고 현재까지 여성의 이상적인 얼굴형은 계란형으로 간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여성들이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얼굴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혹은 성형수술 등을 통해 이상적인 얼굴 윤곽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얼굴형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 시대를 풍미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1960대의 김지미, 1980년대의 정윤희,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원미경, 이들 세 사람을 보고 그 시대의 이상적인 얼굴형을 유추해 보면, 약간 통통하면서 덕스러운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얼굴이 작고 가름한 서구적인 마스크가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전의 얼굴형과 비교해 보면 모두 달걀형에 가깝지만, 얼굴을 3등분하여 분석해 보면, 중단(미간부터 코끝까지의 길이)을 100으로 봤을 때 코끝에서 턱까지의 길이와의 비율이 1990년대 이전에는 93정도로 턱의 길이가 짧았는데, 오늘날에는 96정도로 거의 중단(미간~코밑):하안(코밑~턱끝)의 비율이 1:1로 더 가름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롤리타 에그형’으로 분류하는데 불황의 영향으로 남성적 느낌을 동경하는 한편 어리고 귀여운 것에 대한 미련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있는 듯 하다.²⁹⁾ 시대에 따라서 얼굴 형태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적인 얼굴 길이는 보통 182~186mm이고, 얼굴 폭은 양쪽 광대뼈 사이의 가장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129~130mm정도이다.³⁰⁾

현대 이상적인 얼굴은 얼굴 길이를 3등분하여 이마 윗부분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가 똑같아야 한다. 또한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는 입을 경계로 위, 아래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시대마다 선호하는 이상적인 얼굴은 다르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얼굴일 것이며 똑 같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부합될 때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겨 보다 나은 인상이 만들어 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절대적인 미(美)의 기준은 없지만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

29) 조용진, 중앙일보칼럼, 한서대학교 부설 얼굴연구소소장, 2004.

30) www.beautyl.miz.naver.com

과 더불어 이상적인 얼굴의 기준은 만들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 시대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그 기준이 전적으로 좋은 인상의 얼굴일 수는 없지만, 성형외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시술을 하듯 메이크업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얼굴을 참고로 하여 그 사람의 얼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기법을 활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오늘날의 이상적인 얼굴형에 맞춰 여러 가지 얼굴 형태를 관상학적으로 분석하고 좋은 인상의 얼굴은 배제하고 남에게 보다 나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한 메이크업 기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9> 시대별 선호하는 얼굴들-이효리의 얼굴 분석

2. 얼굴형 분류

사람들의 얼굴형은 실제로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자들은 얼굴형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왔으며 얼굴형을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된 유형은 연구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달랐다.

Davis³¹⁾는 얼굴형을 계란형(oval), 정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삼각형(triangular),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마름모형(diamond), 직사각형(rectangular)의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木會力初는 얼굴형을 계란형, 삼각형, 사각형의 세 유형으로 대별하고, 다시 계란형에는 계란형과 원형을, 삼각형에는 마름모형과 역삼각형을, 사각형에는 네모형과 삼각형을 포함시켜 총 6가지 얼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계란형을 이상형이라고 하였다.

Tate는 얼굴형을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石原久代 등은 안면의 형태적 요소를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대학생의 안면 사진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진에서 각 얼굴 부위를 간접 계측한 후, 그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얼굴형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형, 원형, 능형, 난형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혜성은 각 얼굴 유형의 특징을 상안, 중안, 하안의 세 부분의 상대적 넓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였다. 예컨대, 직사각형은 상안, 중안, 하안의 길이가 같아 보이고 수평적인 헤어 라인과 돌출되어 각진 양턱을 지닌 얼굴형이라 하였고, 둥근형은 중안 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넓고 상안과 하안은 비슷하며 이마의 헤어라인이 둥글고 턱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얼굴 길이가 짧아 폭과 길이가 거의 같다고 하였다. 타원형의 경우, 중안 부분이 가장 넓고 상안이 중간이고 하안이 가장 좁은 넓이를 지니며 이마의 헤어 라인은 둥글고 턱은 좁고 가름하여 곡선적이라 하였고, 사각형은 직사각형처럼 상안, 중안, 하안 길이의 비와 헤어 라인은 비슷하나 둥근형과

³¹⁾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p. 152-154, 1987

같이 길이와 넓이가 같다고 하였다. 삼각형의 얼굴은 상안이 넓고 하안이 좁은 것이 특징이고 헤어 라인은 수평이며 턱끝이 좁고, 육각형은 중안 부분이 넓고 상안과 하안은 같은 넓이이며 헤어 라인은 수평적이고 턱은 각져 있다고 하였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안 부분이 넓고 튀어나와 보이며 헤어 라인은 이마 시작선 부분이 뾰족하고 넓으며 얼굴의 넓이에 비해 길이가 긴 편이고, 서양배형은 하안 부분이 넓고 중안, 상안의 순으로 좁으며, 헤어 라인이 뾰족하거나 수평, 혹은 곡선이고 턱은 곡선적이라고 하였다.

김경순³²⁾도 얼굴형의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얼굴형을 계란형, 장방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의 7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7가지 유형의 얼굴형 중 계란형이 표준적인 미인형으로 메이크업의 기준형이 되고 모든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한 형이지만 경우에 따라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장방형은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형으로 젊고 발랄한 느낌보다는 여성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라고 하였다. 둥근형은 둥글고 통통한 얼굴로 귀엽고 어려 보이는 반면 둔해 보일수도 있는 단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역삼각형은 이마의 가로 넓이가 턱의 넓이보다 넓은 얼굴형으로 가냘퍼 보이고 예리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삼각형은 볼의 아래 부분이 넓어 의지력이 강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형이기 때문에 뺨에서 턱까지의 대각선으로 느껴지는 메이크업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각형의 얼굴은 얼굴의 폭과 길이가 비슷하고 하악이 튀어 나온 형으로 우직하며 굳세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어 신뢰감이 가는 형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름모형은 관골궁이 튀어나와 이마와 하악이 관골궁보다 좁아 보이는 형으로 예리하고 강하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므로 온화한 느낌으로 유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피부 미용과 헤어 스타일을 위한 얼굴 분석을 목적으로 했던 황의순³³⁾도 얼굴형을 7가지 즉, 계란형, 원형, 사각형, 긴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얼굴형이 표준형인 계란형에 근접해 보이도록 하는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

32) 김경순, 『Make up』, 청구문화사, p. 68-75, 1996.

33) 황의순, 『미용학 개론』, 1996, pp.185-189.

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각 문헌에서 분류하고 있는 얼굴 유형에 대한 명칭과 분류한 얼굴형의 수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저 자	얼굴 유형 수	얼굴 유형별 명칭
Davis(1980)	7	타원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직사각형
石原久代(1985)	4	각형, 원형, 능형, 란형
木會山 력초(1987)	6	타원형,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역삼각형
Tate(1991)	4	타원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이옥희(1992)	4	둥근형, 네모형, 긴형, 역삼각형
김경순(1995)	7	계란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직사각형
이혜성(1996)	8	타원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직사각형, 서양배형, 육각형

<표 1> 각 문헌에 따른 얼굴 유형별 명칭과 분류 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상적인 얼굴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매스 미디어가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연예인들 중에서 그 모델을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요즘 영상 매체를 통하여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 13명을 선정하여 18세~ 28세를 기준으로 4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얼굴형을 비롯하여 각 부분별로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목구비를 가진 연예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얼굴형	눈썹	눈	코	입
송혜교	12.9	28.9	33.3		55.6
이효리	22.0		11.1	4.4	
한가인	4.4	22.2	15.6	53.3	
이영애	4.4		8.9	2.2	
김남주	4.4	2.2	6.7	6.7	4.4
전지현	13.3	11.1	2.2	13.3	6.7
김희선	13.3	6.7	4.4		11.1
하지원	6.7	15.6	11.1		6.7
고소영	4.4	4.4		20.0	6.7
박예진					4.4
박주미	12.0	2.2	2.2		2.2
한지혜	2.2		4.4		2.2
이승연		6.7			

<표 2> 얼굴 각 부분별 이상적인 연예인

이 도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을 높은 수치부터 나열해 보면 이효리, 전지현, 김희선, 송혜교, 박주미인데 박주미를 제외하면 요즘 10~2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 얼굴이 작고 서구적인 마스크로 이전의 얼굴형과 비교해 보면 모두 달걀형에 가깝지만 얼굴을 3등분하여 분석해 보면, 중안(미간부터 코끝까지의 길이)을 100으로 봤을 때 코끝에서 턱까지의 길이와의 비율이 1990년대 이전에는 93정도로 턱의 길이가 짧았는데, 오늘날에는 96정도로 거의 중안(미간~코밑):하안(코밑~턱끝)의 비율이 1:1로 더 가깝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롤리타 에그형’으로 분류하는데 불황의 영향으로 남성적 느낌을 동경하는 한편 어리고 귀여운 것에 대한 미련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있는 듯 하다.³⁴⁾ 시대에 따라서 얼굴 형태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적인 얼굴 길이는 보통 182~186mm이고, 얼굴 폭은 양쪽 광대뼈 사이의 가장 넓은

34) 조용진, 중앙일보칼럼, 한서대학교 부설 얼굴연구소소장, 2004.

부위를 기준으로 129~130mm정도이다.³⁵⁾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이상적인 얼굴은 얼굴 길이를 3등분하여 이마 윗부분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가 거의 같아야 한다. 또한 코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는 입을 경계로 위, 아래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그림 10>이효리 사진



<그림 11>송혜교 사진

35) www.beautyl.miz.naver.com



<그림 12> 전지현의 사진



<그림 13> 박주미의 사진

1) 달걀형

(1) 관상학적 특징

그 시대에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통해 알았듯이 모든 시대를 걸쳐 얼굴형 중 가장 표준이 되는 형으로 모든 여성의 메이크업 목적이 되는 얼굴형이다.³⁶⁾

달걀형의 얼굴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폭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 얼굴 전체에 대한 눈, 코, 입의 균형이 적합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달걀 모양의 얼굴은 이마가 넓고 머리는 둥글고, 모든 면에서 모나지 않고 원만하며 언뜻 보기에도 온화한 감을 준다. 마치 계란을 세워놓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얼굴로 사교적인 재능이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반면, 기분파적인 기질도 있다.

³⁶⁾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2003, p.46

조선시대에는 얼굴의 가로:세로비가 1:1.3인 얼굴을 미인으로 뽑았는데 이것이 바로 달걀형 얼굴의 유형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이상적 미인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미스코리아의 평균은 1:1.5로서 달걀보다 훨씬 가름하다. 이것은 서양 여자의 평균비로 많은 사람들이 서양 미인형 얼굴과 특정 연예인을 모방하고 싶은 현상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2) 메이크업 기법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특별히 얼굴을 수정할 필요가 없고 분위기에 맞추어 부분 화장으로 변화를 준다.



<그림 14> 하지원의 사진- 달걀형

2) 둥근형

서구 미인에 비해 동양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얼굴형으로, 볼에 살집이 풍부하고 귀밑에서 턱에 걸쳐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형이다. 안면의 길이는 짧고 광대뼈 부위가 넓어 안면 윤곽은 둥글고 이마가 좁은 편이다.

(1) 관상학적 특징

이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원만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가 좋고 적을 만들지 않는 요령을 알고 있다. 식욕이나 성욕도 왕성한 편이지만 지나치게 편안한 성격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성인 경우는 초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말년에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여성인 경우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맡기기 좋아하는 면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강한 결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가 좋고 사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교제 범위도 넓은 것이 장점이지만, 약속을 곧잘 어기고 신중함이 부족한 언행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운을 여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2) 메이크업 기법

베이스 전체적으로 가름해 보이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외곽선에 새도를 주어 얼굴이 가름해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는 길게 하이라이트를 준다. 이마 양 옆의 넓은 부분과 볼 양옆의 외곽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새도를 넣어 가름하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다.

눈썹 눈썹은 통통한 볼이 조금이라도 홀쭉하게 보이도록 약간 길게 그리며 눈썹 산을 강조하는 것이 어울린다. 특히 길게 그린다는 점에 유의한다. 눈썹의 폭도 0.5센티미터 정도의 적당한 굵기와 길이로 눈썹 산을 각이 지게 그린다.

아이새도우 시선을 둥근 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눈꺼풀부터 눈썹까지, 눈의 바깥쪽 구석부분에 삼각형으로 새도우를 발라준다. 눈의 구석 안쪽부터 눈썹 뼈의 중앙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가장 밝은 새도우를 발라준다. 이때 밝은 색 끝부분과 어두운색 부분을 그라데이션 해준다. 따라서 눈 화장도 너무 동그랗게 표현하지 말고 성숙한 느낌의 중간톤을 이용하여 눈꼬리를 강조한 이지적인 표정으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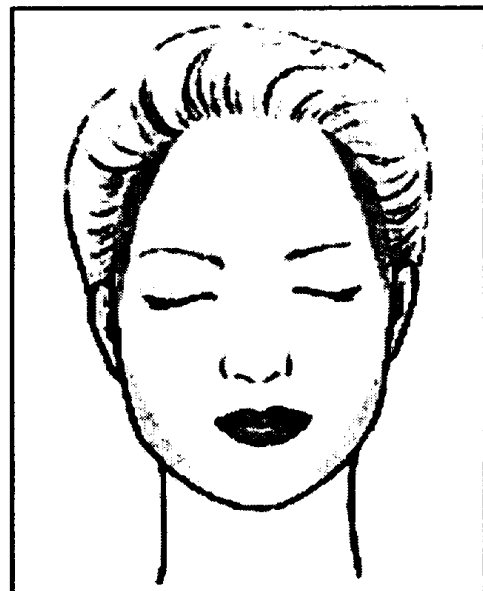
블러셔 볼의 살이 많은 것을 날씬하게 보이도록 관자놀이에서 코끝을 향해 사선으로 폭을 좁게 하여 바른다.

입술 입술은 작고 도톰하게 해준다.

턱 역삼각형으로 볼터치를 해준다.



<그림 15> 조정린의 사진- 둥근형



<그림 16> 둥근형 - 윤곽 수정



<그림 17> 둥근형의 윤곽 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3) 역삼각형

머리는 넓고 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얼굴형은 신경질적인 느낌을 주고 목이 가는 편이다.

(1) 관상학적 특징

역삼각형의 얼굴은 두뇌회전이 좋고 감각도 뛰어나며 상상력도 풍부하지만, 성격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자주 대립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믿는 탓에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초년에서 중년에 걸친 노력이 평생을 좌우한다. 지나치게 머리만을 믿는 것은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남성인 경우 그다지 가정적인 경우가 많고 자식에게 무리한 기대를 가지는 타입이다. 여성인 경우는 상상을 좋아하는 감정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사교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언제나 최고이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2) 메이크업 기법

베이스 턱이 지나치게 가늘어 보일 경우에는 볼 양옆에 밝은 하이라이트를 넣어 통통해 보이도록 하고 각이 지고 넓은 이마 부분에 섀도 처리를 한다. 턱이 뾰족하다면 하이라이트를 넣어 타원형에 가깝도록 수정한다.

눈썹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역삼각형 얼굴은 눈썹을 길게 하고 눈썹의 2/3 지점에서 바깥쪽을 향해 꺾어 준다. 또 다른 방법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아치형으로 눈썹산 길이의 1/2정도에 눈썹산을 만들어주어 날카로움을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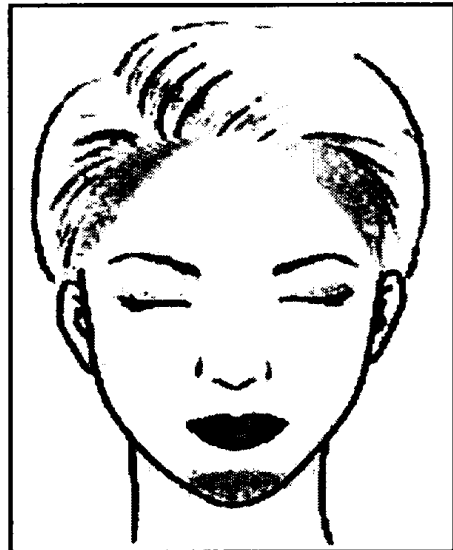
블러셔 뺨 부분에 살이 없기 때문에 화사한 색상으로 은은하게 발라준다.

입술 이 얼굴형은 날카로운 인상을 주기 쉬우므로 입술색은 짙지 않은 중간 톤의 소프트한 립스틱을 선택해 자신의 입술보다 다소 크게 그리는 것이 좋다.

턱 뺨과 턱을 하이라이트로 처리하면 볼이 통통해 보인다.



<그림 18> 도지원의 사진-역삼각형



<그림 19>역삼각형-윤곽수정



<그림 20> 역삼각형의 윤곽 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4) 사각형의 얼굴

네모형인 얼굴은 긴 얼굴이면서 하관이 나와 있는 얼굴로 살이 많아 보이기 보다 뼈가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남성적이고 역세보인다. 정면에서 볼 때 하관이 넓어서 사각형으로 보이는 얼굴을 말하는데,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타입이다.

(1) 관상학적 특징

신경도 무딘 편이고 끈기가 있어서 사색형이라기 보다는 활동가인 반면, 고집이 세고 지나치게 완고한 면이 있다. 중년에서 말년에 걸친 운이 좋는데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남성인 경우, 가정을 사랑하고 친구와의 우정도 두터운 편이지만 애정 표현이 미숙하다. 스테미나와 반항심을 잘 조화시키는 여성은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 하는 편이지만, 왠지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기 쉬우니 조심해야한다. 여자다운 모습이 부족해서 가끔씩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남자를 불신하는 면이 강하다. 상냥함과 솔직함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메이크업 기법

베이스 네모진 얼굴은 각진 부분에 어두운 색도를 주어 감추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두운 색도를 주는 것과 함께 얼굴 윤곽에 부드러움을 주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 주어야 완전한 수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두가지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발라 피부 베이스를 표현한다.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이마 라인을 둥글게 보이게끔 삼각형으로 발라 주고 광대뼈 바로 밑에서부터는 턱 선을 따라 둥글게 발라 턱 선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눈 밑은 밝게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한다.

눈썹 사각형 얼굴은 각이 있고 커 보이는 인상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눈의 인상이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눈썹산 부분을 올려 부드럽게 각이 진 형태로 그려 주고 전체 눈썹 길이는 길게 그린다. 즉 눈썹을 너무 가늘지 않게 그리며 여유 있는 곡선으로 매끄러운 아치형이나 화살형이 가장 적합하다. 눈썹 산에 약간의 커브를 주어 직선적인 눈썹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다.

아이섀도우 여성스러워 보이는 색상의 색도를 바르면 한결 부드럽고 상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눈꺼풀의 중앙에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한다. 속눈썹부터 눈썹의 꺾이는 중앙 부분까지를 곧게 그리고 퍼 발라준다. 눈꺼풀의 위와 아랫부분 중앙부터 눈썹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어두운 색상을 사용한다. 이때 두 색상이 잘 그라데이션 되게 한다.

블러셔 얼굴의 중간 부분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얼굴 아래쪽으로 블터치를 해준다. 즉 광대뼈의 중심보다 약간 아래로 너무 진하지 않게 안쪽 사선 방향

으로 블러셔를 한다.

먼저 색을 잘 섞은 후, 귀 쪽을 향하도록 각을 잡아 칠해준다. 얼굴의 네 모서리에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음영을 주면 얼굴이 둥그스름하게 보인다.

입술 넓은 턱선에 대조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또 다른 초점을 주어야 한다. 입술은 둥글게 그려서 각진 얼굴을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표현한다. 색상은 되도록 밝은 색을 선택하고 넓은 턱선이 강조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보다 약간 도톰하게 그린다. 입술을 개성 있게 표현하면 상대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턱 끝이 뾰족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턱의 중앙에 볼터치로 삼각을 더해준다. 그러면 끝이 좁아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1> 박경림의 사진-사각형



<그림 22> 사각형 얼굴의 윤곽 수정

5) 긴 얼굴형

길이가 긴 얼굴은 좁고 길며 살이 없고 말처럼 길어 잇몸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얼굴형으로 쓸쓸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한다.³⁷⁾

(1) 관상학적 특징

이런 얼굴형의 사람은 꿈을 좇는 로맨티스트가 많은데 감정에 좌우되기 쉽고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의 타입이다. 말을 잘하고 암전해서 기품이 있어 보이는 반면 남보다 돋보이기를 좋아하며 변덕이 심하다. 또 다른 사람의 강한 의견에 좌우되는 성향이 있다.

남성인 경우 말은 잘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 장사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직감력이 뛰어나고 소리와 색에 대한 감각이 날카롭다. 여성인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사치와 허영을 좋아한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기를 좋아하고 현실보다는 공상의 세계를 좋아해서 청춘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2) 메이크업 기법

베이스 더 이상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의 세로 폭을 절대 강조하지 말고 가로 폭을 강조하도록 한다. 얼굴 길이가 길면서 이마가 넓고 턱이 발달한 경우는 이마와 턱에 어두운 색도 효과를 주도록 한다. 만약 이마와 턱은 그다지 길지 않지만 중앙의 코선이 길다면 코 끝에 색도를 약간 넣어 주어 코 길이가 짧아 보이도록 한다.

37)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2003, p.49

눈썹 직선적으로 짧게 표현해야 효과적으로, 눈썹에 각을 준다거나 섬세하고 긴 아치형 눈썹형으로 그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우려가 있다. 자연스러운 굽기로 약간 짧은 듯하게 그리는 편이 밸런스를 이루는데 효과적이다. 수평적인 일자형 눈썹을 자연스러운 굽기로 그리면 긴 얼굴을 분할시켜 주므로 가장 잘 어울리며, 눈썹산 부분에 약간의 커브를 주는 것도 좋다.

아이세도우 눈꺼풀이 중앙에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한다. 속눈썹부터 눈썹의 꺾이는 중앙 부분까지를 곧게 그리고 펴 발라준다. 눈꺼풀의 위와 아랫부분 중앙부터 눈썹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포인트 색상을 사용한다. 이때 두 색상을 뭉치지 않게 그라데이션한다. 쓸쓸해 보이기 쉬운 인상이므로 눈 화장의 색상을 다소 화려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고 역시 횡적으로 강조한다.

블러셔 볼뺨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직선으로 발라준다. 관자놀이 부분에서 살짝 올려준다. 절대 얼굴 중앙까지 블터치를 하지 말고 머리 선을 가로지르는 수평적 터치를 더해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나이가 들어 보이기 쉬우므로 눈 밑에서 둥글리 듯 발라주면 얼굴이 짧아 보이고 귀여운 인상으로 보일 수 있다.

입술 입술 선은 수평에 가깝게 그려준다. 윗입술의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하고 아랫입술은 약간 바깥쪽으로 그려 발라준다. 그리고 중앙에는 선을 그려 주었던 색으로 가득 차게 발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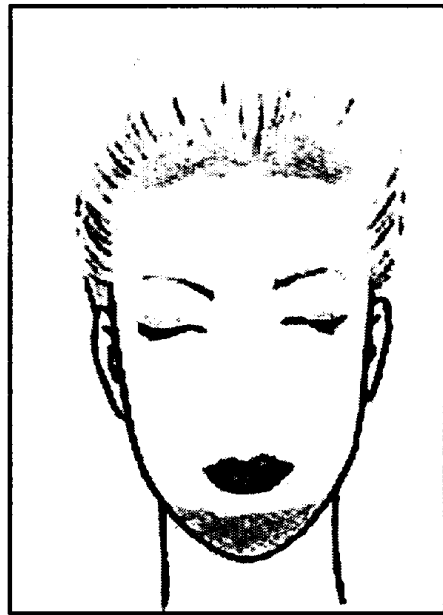
턱 턱 아래쪽에 턱선을 좀 더 옆으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섀딩(Shading)을 해준다.



<그림 23> 긴 얼굴형의 윤곽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그림 24>이태란의 사진-
긴 얼굴형



<그림 25> 긴 얼굴형의 윤곽수정

6) 마름모형의 얼굴

광대뼈 부분이 가로로 벌어져서 마름모처럼 생긴 얼굴은 이마가 좁고 턱이 뾰족하다. 광대뼈가 약간 튀어 나와 있는 얼굴은 관능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외향적이고 쾌활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얼굴 윤곽이 두드러져 성격이 강하고 차가워 보이기도 한다. 특히 동양인의 볼 면적은 눈, 코, 입의 윤곽에 비해 너무 넓은 편이어서 결코 매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 관상학적 특징

인내력이 강하고 실천력도 있지만 웅고집스러운 면과 빠치기를 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교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몰래 뭔가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교제가 길어질수록 다툼의 요인을 자주 제공하게 되어 신용을 잃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남성은 명예욕이 강하고 끈기가 있지만 포용력이 부족하다. 여성은 앞에서는 잘 돌보아 주면서 뒤돌아서면 즉시 험담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성적인 타입이지만, 지나친 잔소리 때문에 그동안 쌓은 공을 한번에 잃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2) 메이크업 기법

베이스 광대뼈를 수정하기 위한 메이크업은 볼 측면과 정면 모두 감안해서 표현해야 한다. 볼의 측면에서 가장 볼록하게 두드러진 부분에 짙은색 블러셔를 바른다. 눈 바로 아랫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준 것이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되는지도 확인한다. 볼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눈 바로 아랫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아래쪽 광대뼈에는 새도 컬러를, 위쪽에는 하이라이트 컬러를 발라 준다. 새도 컬러와 하이라이트 컬러의 중간 부분에 블러셔를 발라 마무리한다.

관자놀이와 뺨 밑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볼에 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광대뼈는 치크와 새도를 가로 방향으로 넣어서 둥그런 얼굴형으로 보이게 한다.

눈썹 각이 진 눈썹은 얼굴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다소 완화되어 보이게 눈썹의 앞머리에 포인트를 준 화살형으로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림 26> 마름모형의 윤곽 수정, 본 연구자의 작품

VI. 얼굴형과 인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얼굴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신체의 일부이며 타인에게 맨 먼저 지각되고 흥미의 초점이 된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얼굴은 성별이나 나이, 종족은 물론, 한 시대나 문화가 제시한 미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따라서 얼굴에 가지는 관심과 흥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Walster, Aronson, 및 Rottman(1966)이 수행한 실험에서도 이 현상을 보고한 바가 있다. 이들은 미네소타 대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무선적으로 데이트 상대를 선정해 주었다. 그 결과,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데이트를 계속하게 만든 유일한 결정 요인은 지능이나 그 외에 다른 성격들이 아니라 신체적 매력이었다.

신체적 매력은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이성 관계에서 상대의 매력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는데, 얼굴형은 신체적 매력의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Wagatsuma와 Kleinke(1979)는 여성의 미를 판단함에 있어 계란형을, 남성의 매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각형의 얼굴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Perrett와 Yoshigawa(1994)의 연구에서도 얼굴형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 판단과 인상 형성에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굴형이 인상 형성에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최근에 여성의 얼굴 특징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국외 잡지와 성형외과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어린 모습으로 동안의 얼굴 인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섹시한 이미지를 지닌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면 각 얼굴형들이 여성의 인상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조사 대상은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는 18~28세까지의 45명의 학원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지 응답에 참여하였다.

2) 측정 도구

(1) 자극물

7매의 사진이 최종적인 자극물로 사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현재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이효리의 얼굴을 사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긴형, 둥근형, 삼각형의 얼굴로 포토샵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3) 설문지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참여는 순전히 자유임을 밝히고 있고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인상에 대한 측정 항목들로 구성되었는데 응답자들은 사진을 본 후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각 얼굴형이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4) 인상 형성에 관한 측정 도구

설문지에 포함된 인상 형성에 대한 항목은 45명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의 인상
에 대하여 자주 쓰는 단어 8개로 한정하였다.

2. 분석 결과

	개성있는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우둔한, 선량한	날카로움	지성적인	늑어 보임
계란형	2.2			6.7		8.9	
사각형	4.4	44.4		2.2			4.4
역삼각형			4.4	6.7	93.3		
마름모형	53.3	6.7		2.2	22.2		11.1
긴 형	13.3	4.0	26.7	13.3	13.3	13.3	15.6
둥근형			6.7	93.3			
삼각형	8.9	22.2	1.2	8.9			55.6

〈표 3〉 얼굴형별 이미지 특성 설문조사

3. 결 론

위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계란형의 얼굴을 가장 “여성스러운” 인상으로 보고 그 다음은 긴 얼굴형과 둥근형, 역삼각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각형의 얼굴을 “남성스러운” 인상으로 보았다. 역삼각형 얼굴은 “날카로운”인상을, 마름모형의 얼굴은 “개성 있는”과 “날카로움”에서 각각 높은 인상을 형성하였다. 둥근형은 “우둔한, 선량한” 인상을 형성하였고 긴 얼굴형은 “여성스러움”과 “늑어 보임”에서, 삼각형은 “늑어 보임”과 “남성스러움”에서 높은 인상을 형성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사람의 얼굴형은 특히 여성에게는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얼굴형을 보완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 보았던 메이크업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인상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VII. 결 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기쁨, 슬픔 등의 마음의 상태는 대부분 얼굴 표정으로 전해져 나오므로 얼굴은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긴 운명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 운명은 결과적으로 관상으로 관찰되어 지는데 그 관상을 조금이라도 메이크업을 통해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메이크업은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므로 얼굴의 장, 단점을 파악하여 자신만의 적합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골상과 안면 근육이 어떻게 연관되어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고 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얼굴형과 인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화장법과 보다 나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메이크업 기법을 관상학을 기초로 하여 제시하였다. 미용 성형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관상학적으로 얼굴 형태적 특징을 알고 좋은 인상에 적합하게 메이크업 기법을 발휘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관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이크업을 시술하기에 앞서 얼굴 생김새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안면 근육이 얼굴 표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관상학적 관점에서 얼굴의 형태적 특징에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메이크업은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중요한 역할도 담당한다. 자기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더욱더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얼굴에 긍정적인 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타고난 외모에 의해서 불과 몇 초만에 첫인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일차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골상에 입혀진 안면 근육에 표출되어 표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좋은 인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져 좋은 인상으로 남아 긍정적인 관상으로 관찰되어지고 나쁜 인상은 부정적인 관상으로 관찰되어진다.

셋째, 보다 나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요즘에 성행하고 있는 미용 성형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뼈와 근육을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미용 성형 역시 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 만족적인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미용 성형과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 도구와 테크닉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넷째,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다 나은 관상을 만들기 위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그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얼굴의 프로포션을 제시하였다. 물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의 특징이 다르지만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그 시대만의 이상적인 얼굴형이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이상적인 얼굴형은 당대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 되었고 각종 매체를 통해 그들의 얼굴을 분석해 놓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얼굴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형 수술과 메이크업 시술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우리가 6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김지미씨나 80년대 초에 인기가 있었던 정윤희씨의 얼굴보다 최근에 유명한 송혜교, 소이현, 이효리 등과 같은 얼굴을 닮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그리고 이들 얼굴들의 각각의 비율들이 신기하게도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인상학적으로 좋지 않은 얼굴 형태적 특징들을 살펴 보았고 그 시대의 이상적인 얼굴과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을 분류하여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이에 맞는 수정 메이크업 기법을 제시하였다..

사람의 관상은 처음부터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

고 있는지, 그리고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람의 얼굴 상은 변한다. 따라서 외모도 이에 맞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보다 나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수정 메이크업 기법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며,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광숙외, 『The Make up』, 예림 출판, 2001
-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웅진 출판(주), 1996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 윤명중, 『얼굴미학』, 동학사, 1989.
- 김남희, 『Base Make up』, 예림, 2003.
- 이현주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주)라사라패션정보, 2003
- 강근영외, 『메이크업과 헤어 일러스트레이션』, (주)라사라패션정보, 2001.
- 한명숙, 『마귀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2000.
- 이정환, 『얼굴보고 사람을 아는 법』, 상아, 1999.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주) 사계절 출판사, 2000
- 장우식, 『분장학 개론』, 한성대학교 예술 대학원 교재.
- 최영순, 『가정 인상학』, 명문당, 1989.
- 강대영, 『한국 분장 예술』, 지인당, 1999.
-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도서출판 신유, 1994.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 김효정, 『학연사』, 학연사 1999.
- 김종선외, 『이비인후과학』, 일조각, 1999.
- 조용진, 『중앙일보 칼럼』, 2003. 8면
- 이진용,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청구문화사, 2002
- 김경순, 『Make up』, 청구문화사, 1996
- 황의순, 『미용학개론』, 1996

<논문>

-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인상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미애,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화순, “한국 여성의 메이크업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 미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이나경,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숙연, “미니멀리즘을 활용한 화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노효경, “얼굴 이미지 구축과 색조 화장의 분석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1.
- 배정자, “웨딩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 이연희,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유행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 강은주, “눈썹 화장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패션예술 대학원, 2003.
- 강 영, “메이크업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2001
- 김봉인, “화장 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 김화심, “웨딩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2002
- 권혜숙, “얼굴형과 여성의 인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디지

인 연구소, 1999

송은화, “동양 관상학을 적용한 20대 한국 여성 캐릭터의 성격별 얼굴 형태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2003

안혜정, “만화 영화에 있어 캐릭터의 얼굴 유형에 대한 관상학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1999.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뷰티디자인과, 2003.

주선임, “인상학에 대한 동양 철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2.

김은정, “메이크업의 선과 면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 인터넷 사이트 >

<*www.mynetian.com>

<*www.world-tattoo.com>

<*www.sed.co.kr>

<*www.beauty1.miz.naver.com>

<*www.cambridge.co.kr>

<*www.wamco.or.kr>

<*www.burimhong.pe.kr>

<*www.dotorson.co.kr>

< 외국 문헌 >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jesy, 1987.

ABSTRACT

A Study of Make-up Technique According to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ce in View of Physiognomy

So, Koung Mi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Make-up is an act that satisfy the human's basic desire to be beautiful. But the meaning of make-up doesn't limited only itself. Nowadays the meaning is expressing idea, courtesy. Furthermore, it gives social meaning that make people much more sensitive and attractive. In other words, it fulfills mutual communication and creation of image.

First impression of one's shape, behavior and characteristic would be defined in a short time of 6~7seconds. When we talk about someone, we mentioned one's feature of face together so often. This affects to form one's characterist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finding a better make-up that matches each shape of face. This study finds out ideal shape of the trend through not only domestic and overseas books, publications and web surfing but also survey for youth. There are seven shapes of face.

A rounded face is "womanish" and "ideal", a sharp face is keen, a diamonded face is individual, a squared face is mannish, a long face is intelligent, a tri-angled face is old. So we know the fact that a shape of face affect to define one's impression.

Therefore we can be better shown when we makes up for each shape.